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 로덴나무 그늘교회

---

날짜 : 2023.01.15

시간 : 오전 11시

장소 : 친구사이 사정전



# 예 배 순 서

예배의부름

사 회 자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양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 같 이

대 표 기 도

쌩

성 경 봉 독

창 18:1~15

다 같 이

찬 양

다비드 찬양대

설 교

그대를 모십니다

김정원 목사

봉 헌

다 같 이

축 도

김정원 목사

소 식

사 회 자

파 송

일어서서

\*

예배시작 전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의부름

## 사회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 신앙고백

## 다 같이

---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 찬양

다 같이

## 218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통일 369)

보통으로

1.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2.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3.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사랑하랴 널 땀 흘려 아끼는 자 위해 서도  
사랑 못하랴 내 몸이 너를 위한 죄인을 사랑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받은이 몸 내 생명 다바쳐 충성하리 아멘

# 대표기도



# 성경봉독

얇은 글씨는 사회자가, 굵은 글씨는 회중이 읽습니다.

## 창세기 18:1~15

1.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2.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3.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물을 좀 가져 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5.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 성경봉독

6.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7.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8.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10. 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 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 성경봉독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12.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13. 그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14.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 같이)

15.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찬양

다비드 찬양대

#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송 187장)

설교

김정원 목사

그대를 모십니다



# 봉 헌

## 다 같이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 정성실 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  
너의 좌편에 그늘 되시니 -  
낮의 해와 밤의 달 - 도 너를 해치 못하리 - 하나  
그가 너를 지키시리 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서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 다

Copyright (C) 1996 정성실.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일, 보금자리, 사랑, 미지정)

카카오뱅크 7979-72-04893 ㅂㅇㅇ

축도

김정원 목사

## 소식

### 1.

오늘 예배 후, 담임목사님 청빙안으로 임시총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회원 명단 (총 32명)

뉴노멀, 노버츠, 동윤, 동혁, 동훈, 로마, 미가, 승훈,  
세진, 수수꽃다리, 쌤, 아이작, 여니, 영태, 은영, 이니,  
이름, 이턴, 일욱, 재민, 재윤, 조이, 휴, 진원, 지미, 쫘,  
창희, 티거, 한별, 루카스, 수호, 우

### 2.

다음 주, 1월 22일은 설날 맞이 흠어드는 예배로 진행됩니다.

친구사이에서는 예배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방문 가능하신 교회는 이번 주 내에 밴드 및 조별  
공지 드리겠습니다.



## 소식

3.

23년부로 현금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7979-72-04893 ㅂㅇㅇ

4.

약정현금을 새롭게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신청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PrFPWJ3KruK3Yy497>

파 송

##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일 어 서 서

---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혐오 차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